

# 눈감는 순간까지 불사회향 발원

## 부산 진여원, 2000일 관음기도회향식

“1000일 기도를 시작할 때만해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나갈 수록 마음은 편안해졌고, 2000일 기도를 회향하는 이 순간 부처님의 가피와 도반들에게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순덕, 법명 보타월)이 7월 13일 '진여원 도량 건립불사 2000일 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3000일 기도를 회향 때까지 남은 1000일 기도 원만 회향을 위한 발원기도도 함께 진행됐다.

진여원은 3000일 관음기도 회향 이후 현 건물 4층을 추가로 임대해 센터에서는 불교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불교교리강좌 및 신행활동 프로그램 신설, 지역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신도 자녀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인재 불사에도 나선다.

또 부산시 북구청과 협력해 200평 지상 4층 규모의 호국 진여원을 건립해 진여원에 모셔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235위의 위패를 봉안할 예정이다.



진여원은 7월 13일 진여원 도량 건립 2000일 회향법회와 함께 1000일 기도 발원기도를 진행했다.

건립불사 기도는 6년 전 60명이 함께 시작했다. 6년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던 노보살 5명은 회향법회를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재소자들의 동참도 있었다. 교도소에서 3000일 기도에 동참한 재소자 23명 중 1명은 3000일 회향법회에 출소해 회향까지 함께 할 기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생을 못 다 이룬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1000일 기도부터는 <금강경>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사경해 매주 우편으로 보내왔다. 사경된 경전들은 그들의 기도공덕이 삼라만상에 닿을 수 있도록 태워 뿌려졌다.

불자들은 도심 도량으로 인접한 주택가를 배려해 매일 새벽 6시 관음정진기도에는 묵탁을 치지 않았고, 오전 10시 사시예불 후에는 법당이나 집에서 스스로 수행정진에

임했다.

이번 기도에 동참한 권경옥(법명 보경월) 씨는 “2000일 기도를 마친 지금은 어떠한 큰일이 닥쳐도 휘둘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누구나 일상에 쪼들려 살지만, 기도를 하면 세상을 등글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고, 많은 도반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수행정진을 열심히 했으니, 앞으로 영원불변의 진리를 신도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불교교육에 힘을 쓸 것”이라며 “진여원이 참 불자를 기르는 ‘인법당’이 되어 사람을 제대로 키워주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여원은 1997년부터 13년째 6월 초 북구 화명동 북부경찰서 옆 현충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해, 유가족과 보훈단체 회원 등을 초청해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어려움을 보듬어 안고 있다. 신도 중 전 불군경미망인회 회장인 한 미망인을 위해 1997년 호국영령과 전불군경영가 합동전도제를 봉행하고 진여원 법당에 호국영령 235위의 위패를 봉안했다. (051) 338-1008

박지원 기자

# 외교사절단, 한국불교에서 답 구해

## 범어사, 중국 부산총영사·태국 방콕시장 잇달아

중화인민공화국 부산총영사와 태국 방콕시장이 잇달아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를 방문해 불교를 통해 정지 현안에 대한 답을 구했다.

7월 9일 학호비(郝曉飛) 중화인민공화국 부산총영사가 영사관 직원 17명과 함께 범어사를 방문했다.

보은 호법국장스님의 안내로 박물관, 일주문, 불이문, 삼층석탑, 대웅전, 휴휴정사 등 도량을 참배하고 사찰음식과 전통차를 체험했다.

학호비 부산총영사는 “한중수교 19년간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도시와 중국의 상호교류가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과 분단되었고 56개 소수민족간의 대화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여 스님은 “중국은 2008년 개최된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급성장해 아시아를 움직이는 강국이 됐지만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을 두루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살정신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1일 오전 12시 태국 수쿰판 버리핏(Sukhumbhand Paribatra) 방콕시장과 주한태국대사 등 18명의 방콕시 대표단이 범어사를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부산시청에서 예정된 ‘부산·방콕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식’에 앞서 종교지도자들



정여 스님이 태국 방콕시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예방한 것으로, 주지실 후원에서 한국 전통 약선식과 사찰음식으로 마련한 오찬을 나눴다.

수쿰판 버리핏 방콕시장은 “1000년 동안 부산시민들의 정신문화를 지켜온 범어사에서 힘차고 역동적이면서 정이 깊은 시민들의 정서를 느끼고 간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전통불교조계종 제1대 종정 경호 스님 추대

전통불교조계종 제1대 종정에 부산 시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자 경호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사단법인 전통불교조계종은 7월 11일 부산 영축사(주지 원산)에서 종정 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제1대 종정에 경호 스님, 제1대 총무원장에는 대한전통 불교문화예술대학 이사장인 원산 스님이 취임하고, 원산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부산 동구 영축사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이 꾸러졌다.

종정 경호 스님은 “종도들과 각 주지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모범이 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200만 부산 불자들 한마음·하나로

###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범어사 신도회장

“200만 부산 불자의 역량을 결집해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부산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이하 연합신도회) 제2대 회장으로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사진)이 내정됐다. 창립멤버인 그는 앞선 설동근(교육·육감) 초대회장이 다져놓은 초석 위에 굳건한 집을 지어아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윤희 회장은 “불심 도시인 부산은 그동안 한국불교의 든든한 대들보가 됐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하지만 불자들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의 목소리도 들려온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기쁘보다는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신도회는 기존의 여러 재가단체 간 화합에 대한 우려 속에서 2008년 11월 20일 창립했다. ‘부산 불교발전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고, 나아가 부산이 세계불교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공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재가불자를 발굴해 부처님 정법이 사회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 승가단체인

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재가자로서 승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했다.

이러한 3년간 노력으로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조계종과 천태종, 일붕산교종, 태고종, 진각종 등 지역 내 10여개 종단의 50여개 사찰, 30여개 신행단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수행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기 동안 단결된 연합신도회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신도회를 비롯한 단위사찰의 신도회 등의 대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이 회장은 임기 내 재가불자의 대통합을 목표로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투명한 경영과 조직의 안정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1대 회장단이 추진한 사업을 성공모델로 삼아 >재가불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아시아 빈곤불교가 지원 등 주요 사업도 이어간다.

그밖에 연합신도회와 단위사찰 신도회 결집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장학사업 등 신행프로그램을 개설해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로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북 군위군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불심이 깊으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만난



부처님과 법당은 낯설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 연합신도회의 회장 소임을 맡은 것은 더 열심히 자비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이 환희심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이윤희 회장은 주식회사 태극정 대표이사로서 범어사 신도회장, 김해상공회의소 상공의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한국BBS부산연맹회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KBS부산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 이취임식은 7월 25일 오후 3시 부산 KBS홀에서 개최된다.

(051) 861-8800, www.baob.kr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사무국 박지원 기자

## 용호복지관, ‘아동·청소년 지킴이’ 꿈사모 출범

부산을 대표하는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킴이로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사회복지법인 불교도(이사장 해충, 조계종 포교원장)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2일 2층 강당에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광욱, 이하 꿈사모) 출범식을 개최했다.

꿈사모는 용호동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4명의 젊은 관장을 주축으로 아간 인적이 드물고 방범CCTV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순찰 및 선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순찰 중 만나는 비행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2일 ‘꿈을 가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범식을 개최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김광욱 회장 세 번째 이춘성 관장.

건강하고 바른 심신수양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광욱 회장은 “아동성폭력으로 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더 이

상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바꿔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신 치유 프로그램

#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39회 (20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엔터테인먼트 선무도 공연단 “사천왕” 공연시간 : 오전 11시, 오후 3시

※ 연 제 : 2011년 07월 24일 ~ 2011년 08월 20일 (4주간)  
 ※ 모집인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2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대상 : 초등학교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주~49만원, 2주~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 골굴사)  
 ※ 준비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운동복·운동화·모자·개인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불 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호연지기 : 호신술, 국공수련, 승마교육  
 3.심정정화 : 108배, 참선, 운력  
 4.정서치유 :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 음악치유(판소리, 전통악기), 생체체형치유  
 5.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 일 과 표 >>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5:00	기상	10:00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좌선·행선	11:00	108배 참회기도	14:00	승마, 다도, 활쏘기, 선무도, 치유프로그램
6:30	아침 공양 (주 1회 발우공양)		자아를 찾는 명상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8:30	영어회화·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150년 전통사찰 · 선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 다 영 瑩 보 普 이 珮

-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원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풍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신차 45,000원 38,000원  
 신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40개 한정수량) 99,000원

###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물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크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